

자 랑 스 런

안 전 인 제 6 호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양사무소 양향열 소장

## 지역 산업사회의 무재해를 꿈꾸며

제35회 산업안전보건대회가 열리고 있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자랑스런 안전인 제 6호인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양사무소 양향열 소장을 찾았다.

양향열 소장은 84년 3월에 안전에 첫발을 내딛어 현재 안전협회 안양사무소 소장으로 지역 산업사회의 재해 감소를 위해 여기 저기 분주히 활동 중이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프레스 전문업체에서의 시작은 쉽게 안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프레스 안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안전협회에서의 13년 경험은 프레스 안전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으로 관찰 지역의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한다.

95년에 안전협회장 표창, 96년에는 노동부장관 표창과 올해 대통령 표창은 그동안 양소장의 적극적인 지역 안전 활동에서 얻어진 결과물들이다.

현재 안양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의장을 맡고 있는 양소장은 타 지역보다 적극적인 안전 활동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영광이 “아직도 부족한 나에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다.

산업사회에서의 안전은 사업주와 연관성이 많아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장 관리를 하는 양소장은 여러 환경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더 신경쓰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손길이 닿지 못하는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양소장이 근무하고 있는 안양사무소는 항상 가족과 같은 분위기이다. “미안할 정도로 나보다 지역 안전활동에 열심입니다. 자발적으로 8시 20분이면 전직원의 출근이 완료됩니다.” 라고 하는 양소장은 항상 안양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직장가족이 있기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늘도 양소장은 프레스 안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구적인 프레스 안전방호장치 개발을 위해 열심히 영세사업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재·사진 : 최종덕 기자>